



반전 · 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화물연대 파업 특별 호외

www.counterfire.or.kr

맞불

2008년 6월 14일 발행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d1gm1@nate.com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 (백은진)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자 전국 주요 항구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파업 효과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광양항, 평택항, 군산항 등은 파업 하루도 지나기 전에 95퍼센트 이상의 물류가 멈췄고, 부산항도 완전마비 초읽기에 들어갔다. 벌써 조업 중단 업체가 생겨났고, 수출기업들도 초비상이다.

바야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파업이 확산되자 정부는 “불법행위 엄단”을 내세워 경찰을 동원하는 등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운송료 인상, 표준요금제 시행, 경유가 인하 같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저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와 수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 경상수지 적자, 고유가 · 고물가를 불러온 것은 바로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그동안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일하는 처지”였다. 치솟는 기름 값으로 일을 할수록 적자는 쌓였고, 화물노동자 4분의 1정도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태다.

반면, 화주와 1차 계약관계에 있는 운송 앞선업체들은 폐돈을 벌었다.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운송회사를 차리는 것도 화물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손쉽게

돈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대 글로벌처럼 재벌 계열 운송회사들은 불법 비자금 조성 창구노릇을 하기도 한다.

이번 파업이 이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조직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비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선언되기도 전에 곳곳에서 비조합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현장의 분노를 보여준다.

분노

이 투쟁은 국민적인 지지도 받고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와 운수노조 홈페이지에는 화물연대 파업 지지 글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한 다수 시민들이 이명박의 ‘재벌천국 · 서민지옥’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우파정당인 자유선진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이전과 같은 노골적인 파업 비난에 나서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힘이 빠지고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이때에 정부와 화주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한다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화물연대의 승리는 경제

위기와 고유가 · 고물가에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통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할 것이다.

지도부가 화물 노동자들의 투지를 제대로 대변하고, 철도노동자들의 대채수송 거부같은 연대 투쟁이 조직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번 파업을 승리해서 그동안 당해 온 온갖 천대와 멸시를 모조리 되갚아 주자!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항만 봉쇄와 도로 점거가 필요하다

승리를 위해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 승리의 비결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 당시 신속하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된 열쇠는 항만 봉쇄와 도로점거 등 과감한 방식으로 물류 마비를 시도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부산의 주요 부두와 의왕내륙컨테이너 기지 등 물류의 심장과 동맥을 봉쇄했다. 2만여 명의 화물연대 노동자가 20만 대의 화물차 운행을 막는 과단성 있는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완전히 굴복해야 했다.

강자들

이 때문에 <조선일보>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물류를 마비시켜 나라를 결단낼 수 있는 강자들”이라며 두려움을 나타낸 바 있다.

그 때처럼 주요 항만을 전부 봉쇄하고, 고속도로를 막는 시위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표준 요율제 도입을 약속했다가 뒤통수를 쳐왔는데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확실한 양보를 거머 쥔 때까지 투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강력한 연대 투쟁이 건설되어야 한다

대단히 기쁘게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연대와 지원 투쟁 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자 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하면 “철도노조 역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연대에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운수노조 산하 다른 업종도 대체수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화물연대가 승리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훨씬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고, 줄줄이 예정된 다른 부문 노동자

투쟁을 고무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 같은 연대 투쟁 계획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체수송 거부

또한 연대 투쟁은 정부의 반격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당장 이뤄질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와 항만 노동자들의 대체수송 거부 투쟁이 시급히 조직되는 것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

업 효과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속·공공운수 노동자들의 파업도 앞당겨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민영화 같은 ‘재벌천국·서민지옥’ 정책 반대를 내건 민주노총 파업 찬반투표가 끝나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곧바로 전면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올해 노동자 투쟁의 선두주자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전체 노동조합 운동의 연대 투쟁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화물 노동자 파업

치솟는 기름 값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의 들끓는 분노가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단지 한국의 일만도 아니다. 유럽과 남미, 아시아 각국 등 세계 도처에서 화물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현재,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확산으로 유럽 전역이 마비되고 있다. 벌써 사흘째 계속된 스페인과 포르투갈 화물트럭 노동자들의 파업이 주말을 거치며 영국·프랑스·이탈리아로 확산될 전망이다.

도로 봉쇄

영국 유조차 운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프랑스 화물 노동자들은

1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이탈리아 화물 노동자들도 조만간 전면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대륙 각국 화물 노동자들은 국경봉쇄 시위를 벌이고, 주요 도로를 막아 물건 운송을 차단하고, 시내

중심가에서 도심을 마비시키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네덜란드 운송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저속운행과 도로 봉쇄를 통해 엄청난 파업 효과를 내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의 저속으

로 주행하면서 경유값 인하를 요구했다. 스페인 트럭 노동자들도 고속도로 봉쇄 시위를 벌였다.

포르투갈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의 시위가 잇따라 리스본 공항의 항공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폴란드에서는 5만 명의 노동자들이, 1년 새 30퍼센트나 오른 경유 값을 내려달라며 운행을 중단했다.

필리핀 노동자들도 기름값 인하를 요구하며 트럭 80여 대를 동원해서 마닐라의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우리도 이들과 함께 과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이미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와 16일 시작될 레미콘, 덤프 노동자들이 합세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낼 것이다.

파업 중인 스페인 트럭 노동자들이 도로를 봉쇄했다